

대학가 소식



덕성여대 교내 도서관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덕성여자대학교는 교내 도서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실시된 '2017년 전국대학도서관 시범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411개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총 25개 정량지표를 적용해 이뤄졌으며 대학 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총 6개의 우수 대학을 선정했다.

덕성여대 도서관은 수도권 4년제 B그룹(재학생 5000명 이상 1만명 이하) 16개 대학 중 최고점을 받았다.

덕성여대 도서관은 74만여 권의 도서, 4만여 종의 비도서와 전자자료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2010년 리모델링을 거쳤고, 2013년에는 서울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됐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1억 지원 창업아이템 모집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창업지원단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2차 모집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국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선정된 이후 8년 연속 창업아이템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총 9개 기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가 멘토링, 기업 IR(투자유치), 맞춤형 창업교육 등 다양한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 팀이나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창업선도대학에 동국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선정

중앙대(총장 김장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산업보안 특성화학과(학·석사 통합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산업보안 특성화학과 지원사업은 통합적인 보안교육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보안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중앙대는 '보안데이터 분석센터(Center for Security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산업별 정보를 수집하고, 입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보안문제 해결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실험실 창업 기반 닦는 5개 대학의 '무한도전'

- 승실대 대학원생 창업맨 無 논문 졸업 가능
- 연세대 상시 멘토링·최대 '30억' 투자 보증
- 전북대 휴학 '4년' 확대·기술창업학과 개설
- 한국산업기술대 연구·창업 병행 '스타트업스쿨' 계획
- 한양대 기숙 창업공간 구축·특화교육 운영
- 기숙 창업공간 구축·특화교육 운영



대학 실험실의 연구 성과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창업인 '실험실 창업' 활성화에 힘쓰는 5개 대학이 '실험실 창업'을 위한 선도대학의 도전이 본격 진행된다. 승실대는 대학원생이 창업활동을 하면서 졸업 논문을 내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한국산업기술대는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하도록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를 만든다. 한양대는 기숙형 창업공간을 만들어 스타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나서기로 했으며, 연세대는 최대 30억 원의 투자를 보증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교원이나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승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가나다 순)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

업과 비교해 평균 고용규모(9.5명)가 3배 가량 높고, 창업 5년 생존율(80%)도 일반 기업(27%)보다 월등히 높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대학의 실험실 보유 기술 역량과 대학별 창업 지원 계획 등을 종합한 결과 선정된 5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약 1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실험실 창업 지원에 나선다.

대학들은 실험실 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교육과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해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 실험실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 시장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학내 학사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진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요건을 보완하고, 교원의 실험실 창업 독려를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만든다.

아울러 기업의 설립과 성장이 쉽도록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실험실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 공간도 조성된다.

대학별 계획을 보면, 승실대는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원의 창업 실적 반영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SCI 논문 게재 수준인 최대 20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원생이 창업 활동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또 창업지원 전용공간인 '스타트업 펌프 벤처 스튜디오(Startup Pump Venture Studio)'를 개관해 창업전담 교원을 상주시켜 상시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인 '창업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채용해 우수기술 보유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전담시키고,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실험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을 대학이 추천하면 심사를 통해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 '캠퍼스 스타트업(Campus Start-Up)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전북대는 창업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과정에 기술창업학과(가칭)를 개설한다. 또 전북지역 내 5개 창업보육센터와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별 특화된 창업보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한다. 또 교수의 지도학생이 창업을 하고, 본교 학생을 고용할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학원인 '스타트업스쿨'을 2020년까지 개설해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양대는 실험실 창업팀이나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30명 규모의 기숙형 창업공간인 '247 스타트업 풀'을 구축하고,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멘토 배정을 통한 사업화 밀착마크, 해당 학생 대상 별도의 데모데이(demoday) 개최, 창업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타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교내 실험실 연구 성과와 창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기술 지주회사와 창업지원단의 사업성 검증 심사를 통해 기술 성숙도별 창업·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랩 패스트 M&A 트랙(LAB Fast M&A Track)'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과 대학원생 예비창업팀 발굴 및 시장탐색형 창업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학사·인사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관련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이 혁신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4차산업혁명 바람, 채용시장에도 분다

AI·빅데이터 분야 채용 '40%' 급증

IT·인터넷 분야 증가세보다 높아

지난해 하반기 비 100% 급성장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의 채용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이 채용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이인 지난해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신규 직종 분류로 생성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채용공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이 분야 공고는 월평균 9.4% 증가했고, 1년 중 가장 채용이 활발한 3월에는 전월 대비 무려 39.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포함돼 있는 대분류인 'IT·인터넷'의 증가세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채용 공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IT·인터넷'의 총 채용공고는 상반기 월평균 5% 성장했고, 3월에는 전월 대비 33.1% 증가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중분류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지난 6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업체를 소개하는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Data Analysis(데이터애널리시스)를 비롯해, ▲Hadoop(하둡) ▲Spark(스파크) ▲자연어처리(NLP) ▲R(알) ▲Python(파이썬) ▲TensorFlow(텐서플로)등 데이터 처리방식을 다루는 직종의 소분류로 구성돼 있다.

채용공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분류인 '빅데이터'는 월평균 8.8%, '인공지능(AI)'은 월평균 13.4%, '머신러닝'은 월평균 13.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6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류 생성 이후 하반기(7~12월)의 월평균 채용공고 수와 비교해보면 2018년 상반기에 무려 100.7%가 늘어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재를 구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구직자들도 취업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미래엔

초등생 손글씨 공모전

교육출판전문기업 (주)미래엔은 '제3회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2회까지 총 5000여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수상작 중 3개 작품은 컴퓨터 폰트로 개발돼 초등학교 1~4학년 국어 교과서에 적용되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학생은 국어나 국어활동 교과서에 나오는 글 1편을 골라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9일 한글날 발표된다.

심사기준은 아름다움과 독창성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0명, 입선 50명 총 73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가장 많은 학생이 참가한 최다 학생 참가 학교상 수상 학교에는 미래엔 아이세움에 발행한 눈술 명작 시리즈와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각 1권을 제공한다.

우수 수상작들은 컴퓨터 서체로 개발돼 교과서에 실린다. 수상자 어린이 이름을 따 개발되는 서체 3종은 미래엔이 발행하는 2019년도 초등 5,6학년 국어와 국어활동 교과서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